

부산상공회의

Story for 부산C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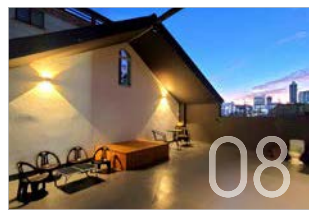
Show

3월호
Vol. 624



Contents

MAGAZINE 2024 vol. 624



INSIDE BCCI

04 사진으로보는 제24대 의원부 3년

취향저격

08 영감을 주는 공간
독립서점 '주책공사',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 별일'

12 힐링 여행지
봄 향기 가득한 매화 여행지

16 문화의 향기
시와 공존할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영화

20 고전 속 지혜
귀인보다 대인입니다



소통공간

22 STORY OF 캡틴장 3년

26 Keyword of 부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30 LOOK AT ME
제이제이앤컴퍼니스

트렌드 토크

34 10년만에 추진되는 단통법 폐지

경제 인사이트

36 Insight for CEO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위한 리더십

38 웹툰으로 보는 경제
세계 최초 AI(인공지능)폰 갤럭시 S24 출시

40 지식의 창고

멤버스 라운지

42 지역 경제계 주요 소식

46 부산상공회의소 2024년 3월 실무교육 안내

48 부산상공회의소 지원사업 안내



부산상공회의소Show
바로가기

발행일 2024년 3월 4일
발행처 부산상공회의소
발행인 장인화
편집인 이영환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전화 051-990-7000
편집-인쇄 (주)프린테크 051-301-3113

부산상공회의소Show에 게재되는 각종 내용은
반드시 부산상공회의소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상공회의소 공식 SNS 채널



YouTube



Instagram



facebook

사진으로보는 제24대 의원부 3년



제24대 의원부 출범식 및 회장 아·취임식(21. 3. 22)



부산상의 회장단 - 르노삼성자동차 현장 방문 간담회 (21. 7. 1)



부산 스타트업 데이 99°C(21. 12. 3)



부산지역공약 국정과제화 부산상의-부산시 합동회의(22. 3. 17)



제336회 상임위원회 및 제24대 명예의원 위촉식(21. 4. 26)



부산상공회의소 윤리강령 선포식(21. 6. 21)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부산상의-부산시 간담회(21. 8. 23)



부산상의-부산시 경제협의체 대표회의(21. 12. 20)



윤석열 대통령 초청 경제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대회(22. 4. 22)



회장단 회의(21. 4. 26)



제24대 의원부 출범 100일 기념 제23차 부산경제포럼(21. 6. 23)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후원 기업 기부금 전달식(21. 11. 15)



국민의힘 부산지역 선대위 초청 상공인 간담회(22. 1. 26)



부산시-부산상의 정책협력 간담회(21. 4. 28)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상공인 간담회(21.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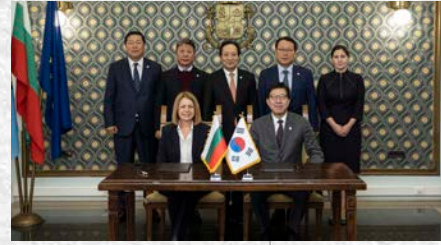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간담회(22. 2. 6)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임지척 오디션 방송녹화(22. 4. 26)



회장단 회의 및 총흔탑 참배(22. 6. 3)



2030부산세계박람회 대통령 특사단 참가(22. 12. 1)



부산 윈스텀 기업지원센터 개소식(23. 5. 23)



2024 부산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24. 1. 2)



2030부산월드엑스포 커피 에디션 퍼스트 테이스팅(23. 2. 16)



2023 SLUSH'D x 99°C(23. 6. 29)



부산상공회의소 박형준 시장 초청 정책간담회(22. 6. 16)



부산 경제계 신기업가정신 선포식(23. 2. 22)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 출범식(23. 9. 26)



에어부산 분리매각 범시민 공동추진협의회 출범 및 1차 회의(24. 1. 29)



이노베이션 밋업 페스티벌 99°C(22. 10. 12)



국회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 초청 간담회(23. 3. 17)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통과 촉구 결구 결기대회(23. 11. 3)



국제박람회기구(BIE) 디미트리 케르켄레초 사무총장 초청 환영오찬(22. 10. 28)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초청 제251차 경제포럼(23. 4. 12)



ESG 상생경영 지원사업 결과보고회(23. 12. 14)



2024년 부산 출향인사 신년인사회(24. 1. 31)



제230회 의원총회(24. 2. 16)



주책공사 서점 입구

주책공사 서점 내부

방문자들에게 특별함을 선사하는 공간 독립서점 '주책공사',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 별일'

글·사진_강동훈 독립서점 크레타 대표

최근 젊은 CEO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독립서점과 다양한 복합문화 공간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공간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데에는 방문자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주변에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줄만한 독립서점과 복합문화공간을 두 곳을 소개해본다.



스페이스 별일 외부 전경

스페이스 별일 루프탑

독립서점 '주책공사'

민락동의 한적한 골목을 걷다 보면 '서점입니다' 라고 크게 적힌 간판을 발견하게 된다. 누가 봐도 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놓은 이곳은, 평일과 주말, 동네 주민과 여행객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이들이 찾아온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익숙한 책 냄새가 우릴 반긴다. 벽을 둘러싼 책장에는 주제와 장르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책들이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진열되어있고, 서점의 메인 공간에는 매력적인 손글씨로 쓰인 감사 편지와 함께 다채로운 독립출판물이 전시되어있다. 4년간 자리를 지켰던 중앙동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알린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독립서점 '주책공사'를 소개한다.

'서점' 조금 일찍 시작한 마지막 버킷리스트

서점이 인생의 마지막 버킷리스트였다는 이성갑 대표는, 책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동네서점에서 책을 사고 독서모임을 진행했다. 하지만 쏟은 애정이 무색하게도 문을 닫는 서점들이 계속 생겼다. 책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나누기 위해 결국 본인이 직접 서점을 열었다. 시작부터



주책공사 이성갑 대표



1 다양한 독립출판물들이 전시되어있는 모습

2 책의 저자가 미지의 독자에게 쓴 감사 편지가 붙어 있는 책

험난했다. 서점을 열자마자 코로나가 발생한 것이다.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도 준비했지만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좋은 책을 소개하고 알리는 것에 집중했다. '서점은 책을 파는 곳'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누구보다 성실히 실천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책을 많이 파는 동네서점 중 한 곳이 되었다. 지역 서점의 침체기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는 성과를 혼자 힘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책을 파는 것이 아닌, 읽고 싶게 만드는 서점

보통 손님들의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에는 가장 많이 팔릴만한 베스트셀러가 자리한다. 하지만 주책공사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작가들이 쓴 다양한 독립출판물이 전시되어있다. 특이한 점은 책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책의 저자가 미지의 독자에게 쓴 감사 편지가 붙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점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그의 생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책을 파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읽고 싶게 만들어야



주책공사를 방문한 사람들이 적은 방명록

한다는 그의 태도는 서점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다책 (다치고 이 책)’이라는 표현으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책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으며, 9시간 동안 책을 읽는 밤샘 독서모임 ‘주책야(夜)독’, 취향을 반영한 책을 골라 6개월간 매달 배송해주는 ‘주책가방’까지 확장되며, 책을 만나는 즐거운 경험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중이다.

맛집 같은 존재 ‘독립서점’

이성갑 대표는 독립서점을 맛집 같은 존재라고 정의한다. 독립 서점을 찾는 손님들은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기대하며 방문하기 때문이다. 처음 시작했던 중앙동도, 지금 자리 잡은 민락동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중심상권과는 거리가 멀었다. 골목의 유명세에 기대지 않고, 지나가다 우연히 방문 하는 뜨내기손님을 기다리지 않았다. 모든 책을 직접 읽고 그중 자신의 취향에 맞는 책을 열심히 추천했다. “계속 책을 논했더니 많은 사람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라는 이성갑 대표의 말처럼, 소문난 맛집 못지않은 소문난 서점이 되었다. ‘입을 거리’들로 넘쳐나는 시대다.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입을 것’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누구 보다 책을 사랑하고, 가장 성실한 독자의 시선으로 추천하는 엄선 된 책을 만날 수 있는 ‘주책공사’라면 당신의 선택은 실패 하지 않을 것이다.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 별일’

전포사잇길은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식점, 특이하지만 특별한 컨셉으로 이목을 끄는 편집샵, 부산의 커피 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다양한 카페 등 부산의 문화를 가장 앞서 이끌어 가는 소비의 중심이다. 하지만 이런 골목에서 감각적인 문화의 온기를 품으며 밝게 빛을 내는 갤러리이자 복합문화공간이 있다. 공간에 들어서면 누구나 개구쟁이 시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다양한 표정의 아이를 곳곳에서 작품으로 만날 수 있다. 20년가량 활동한 미술작가이자 전시 기획자인 정연희 대표가 운영하는 ‘스페이스 별일’이다.

청년작가 전시 지원

1층부터 3층 루프탑까지 다양한 작품 전시가 항상 진행 중인 별일은 정연희 대표의 개인적인 고민에서 출발했다. 그녀는 예술을 하며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별일은 개인 작업공간과 동시에, 후배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청년작가들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다. 아티스트 간의 만남인 ‘아티스트 컨택트 파티’, 신진작가 발굴 전시, 아트페어 등의 행사를 통해 작가들이 작품을 소개하고, 판매



1 BTS 팬아트 전시
2 신선미 작가와의 대화
3 2층 전시관

하는 갤러리 역할을 하는 중이다. 별도의 대관 행사가 없다면 작품 전시가 상시로 운영되고 있으며, 무료 관람이 가능하여 소비자와 예술 간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매력적인 브랜드 팝업 공간

‘브랜드 팝업’의 전성기라 볼 수 있는 요즘, 별일에서는 다양한 브랜드 팝업 행사를 만날 수 있다. 다양한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품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제품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공간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 중이다. 과거에는 주로 대형백화점을 이용했지만, 최근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힙한 골목 상권을 찾는 추세다. 별일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골목인 전포사잇길에 있고, 루프탑 까지 활용 가능한 3층짜리 건물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벌써 BTS 팬아트 전시, 대만관광청 로드쇼, 프로젝트 패션 팝업 등 다양한 팝업 행사가 진행되었다.

신진작가지원전 ‘이제서야 너의 ○○이 보인다’



예술가, 기획자, 브랜드가 함께 하는 ‘블렌딩 클럽’

팝업 공간의 역할은 일회성에 그친다면, 이 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협업 기회가 생기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블렌딩 클럽’을 새롭게 내보냈다. 부산에도 자기의 색깔과 정체성을 확실하게 구축한 매력적인 브랜드가 많이 있는 만큼, 예술가, 기획자, 브랜드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스페이스 별일은 ‘블렌딩 클럽’을 내보내 이들이 함께 만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함께 모색해볼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만들어 가는 중이다. 신진작가들의 젊은 감각과 부산의 매력적인 브랜드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새로운 시도를 가장 가까이서 만나 볼 수 있는 곳 스페이스 별일. 별일 없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쳤다면 이곳을 찾아 새로운 별일을 모색해보길 바란다. 📍

봄이 왔나 봄!



봄 향기가 가득한 매화 여행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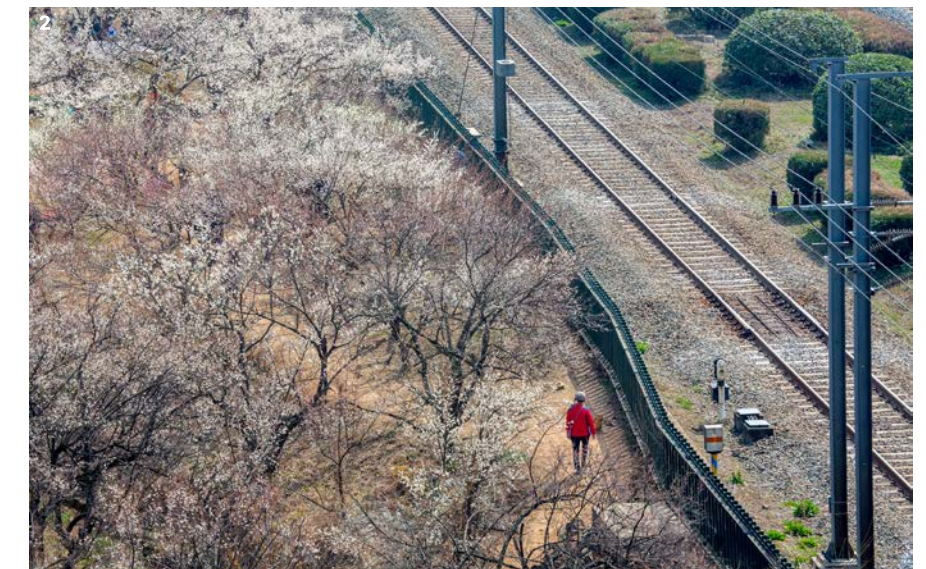
글·사진. 문철진 여행작가

동장군의 기세가 아직도 등등하지만 계절은 이미 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 매화는 이미 절정으로 치닫는 중이다. 거센 한파 속에서도 기어이 꽃망울을 터트려 봄을 재촉하는 매화. 그 고고한 기백에 반한 군자들은 일찍이 대나무, 소나무와 함께 매화를 선비의 지조를 뜻하는 세한삼우(歲寒三友)라 칭했다. 겨울을 밀어내고 봄향기를 사방으로 퍼뜨리는 매화를 원 없이 만날 수 있는 여행지 4곳을 소개한다.

양산 원동 순매원

경부선 원동역에서 200미터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순매원은 매화가 활짝 피는 봄이 제철이다. 낙동강을 따라 달리는 기차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것이 포인트. 꽃망울을 활짝 터트린 매화 사이로 기차가 오고가는 모습을 담으려는 사진가들로 3월 내내 순매원 일대가 북적인다. 언덕을 따라 새하얀 매화가 한가득 핀 모습은 눈덮인 설원처럼 밝고 화사하다. 해가 질 무렵에는 강물에 비친 나른한 봄별이 매화와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3월 중순에는 순매원 일대에서 ‘양산 원동매화축제’가 열린다. 하늘을 뒤덮은 매화꽃 아래에 앉아 파전과 막걸리를 즐기며 원동의 봄을 만끽해보자.

1, 2 양산 원동 순매원





1, 2, 3 광양 청매실농원

광양 청매실농원

대한민국 매화 1번지를 꼽으라면 단연 광양 매화 마을이다. 전남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에 위치한 매화마을은 해마다 3월이면 매화가 만발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든다. 특히 매실 장인 홍쌍리 여사의 청매실농원 매화가 유명한데, 매화 문화축제가 열리는 3월 중순에는 농원 전체가 새하얀 매화로 뒤덮여 장관이다. 3천 개의 장독이 모여 있는 마당을 지나 전망대에 오르면 섬진강과 하동 땅이 한눈에 들어온다. 콧속을 파고드는 진한 매화 향기와 봄바람에 서걱거리는 댓잎 소리가 마음을 청량하게 만드는 곳. 남도의 봄은 그렇게 시작된다. 밤이 되면 매화마을은 더욱 아름답다. 달빛에 반짝이는 매화와 그윽한 꽃향기. 섬진강도 이내 달빛에 물들어 황홀함을 더한다. 새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매화마을의 밤. 그 누구도 시인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양산 통도사

우리나라 3대 사찰의 하나인 양산 통도사.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어 '불보사찰'로도 불린다. 여전히 겨울바람이 매서운 계절이지만 경내의 매화들은 하나 둘 꽃을 피워 봄을 재촉한다. 그 중에서도 신라시대 때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율사를 이름을 따 '자장매'로 불리는 홍매화가 단연 돋보인다. 별이 잘 드는 곳에 자리한 덕에 2월 중순부터 꽃망울을 터트리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몰려 든다. 연분홍 이파리를 수줍게 펼친 홍매화가 흐드러지게 피면 멀리에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진한 향기를 사방으로 퍼트린다. 따뜻한 봄별 속에서 달콤한 홍매화 향기를 맡고 있으면 얼굴 가득 미소가 번진다. 봄의 시작이 이토록 달콤했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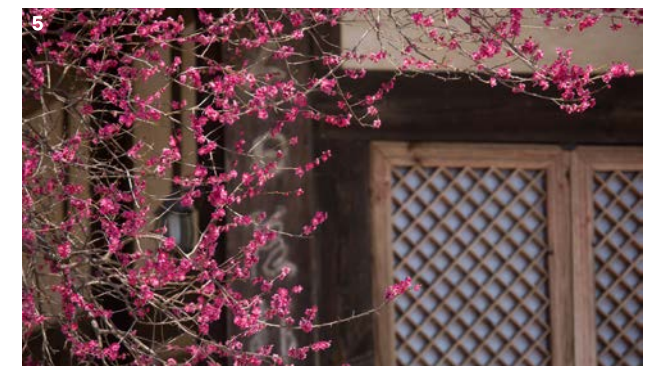


양산 통도사

구례 화엄사

은은하게 흠어지는 매화 향기는 봄을 알리는 신호다. 코끝을 스치는 달콤한 향기에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 매향은 고혹적이다. 지리산 골을 따라 봄바람이 불어오는 4월, 구례 화엄사는 홍매화 향기로 가득하다. 우리나라 고매(古梅) 가운데 가장 색이 붉다 하여 '흑매화'라 부르기도 한다. 휘어진 고목 등걸을 보면 죽히 300~400년은 됐음직 하다. 물감을 끼얹은 듯 진한 색감의 꽃잎이 햇살에 반짝이며 주변을 온통 붉게 물들인다. 신라 진흥왕 5년(544년)에 창건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상과 도선을 비롯한 수많은 고승들이 머물렀던 절집의 역사를 대변하듯 흑매의 자태가 고상하기 이를 데 없다. 홍매화 뒤로 웅장하게 솟은 건물은 각황전이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목조건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각황전 앞 뜰에 서 있는 석등은 통일신라 불교 중흥기, 찬란했던 조각예술의 진수를 보여준다. 지리산을 배경으로 각황전과 석등, 그리고 홍매화의 어우러짐이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다. 📸

4, 5 구례 화엄사



AI와 공존할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영화

글_ 김은정 영화평론가·영화의전당 시네도스트

AI 시대의 도래는 더 이상 새로운 화두가 아니다. 이미 일상 곳곳에 인공지능이 활용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 인간과 똑같이 생긴 AI와의 동거를 그린 SF영화가 현실이 되는 때도 그리 멀지 않았음을 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AI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 여기고, 다른 한편에서는 AI가 인류 종말의 위협이 되리라고 경고한다. 인류와 AI가 공존하는 시대, 만약 그때가 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AI와 함께 살아 갈까. 그 미래를 다룬 두 편의 영화로 우리의 삶을 상상해보자.



사진출처: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Movie Info
개봉 2022.06.01.
등급 전체 관람가
장르 드라마, SF
국가 미국
러닝타임 96분

애프터 양 진짜 가족으로 기억될 AI

<애프터 양>(2021)은 가족 그 이상이었던 AI가 작동을 멈춘 뒤, 남겨진 가족들이 그와의 경험과 기억을 되새기는 내용의 영화다. Apple TV+ 드라마 시리즈 <파친코>의 연출로 국내 관객에게도 잘 알려진 한국계 미국인 감독 코고나다의 두 번째 장편 영화로, 2021년 칸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것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다. 알렉스 와인스틴의 단편소설 『양에게 작별 인사를(Saying Goodbye to Yang)』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그간 AI를 다룬 SF영화 대부분이 인간과 비교되는 AI의 정체성,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AI, 인류와 AI의 전쟁 등을 다룬 것에 비해 가족, 뿌리, 기억과 경험 등 보다 정서적 화두를 던진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 작품이다.

가족마저 구매하는 미래
AI와 완벽하게 공존하는 세계, <애프터 양>은 그런 미래를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 제이크와 카이라 부부는 중국인 여아 '미카'를 입양하면서 딸에게 중국인의 뿌리와 문화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오빠 역할을 할 AI '양'을 구매한다. 청년의 모습을 한 AI 양은 영아였던 미카가 초등학교로 성장할 때까지, 미카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맞벌이하는 부모를 대신해 미카의 돌봄을 거의 전담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살아간다. 가족의 일상은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하다. 그러던 어느 날, '양'이 갑자기 작동을 멈춘다. <애프터 양>에는 온갖 종류의 AI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세계가 그려진다. 인간과 완벽하게 닮은 모습으로, 인간 사회에 뒤섞여 공존하는 AI를 '테크노 사피엔스'라 지칭한다. AI를 일종의 신인류로 여기는 것이다. 중국의 역사와 언어 등을 알려주는 '양'은 '문화 테크노'의 일종으로 신속한 업데이트나 지속적인 개발은 필요 없는 종으로 그려진다. 제이크는 형제자매용 AI 판매 매장에서 '양'을 구매한 것으로 설정된다. 영화 속 세계는 AI를 구매할 때, 정품을 살 것인지 일종의 리퍼 제품을 살 것인지, 각 경우 보증기간이 얼마인지, 고장난 AI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할 것인지, 재활용할 것인지 부품을 중고로 팔 것인지 등 오늘날 가전제품의 소비와 유사한 방식으로 구매되고 소비되는 AI 시대를 미래로 그린다.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AI의 청사진 같은 미래다.

AI와 인간의 접목

가전제품처럼 구매되기에 AI는 그런 존재로만 사용되는 것인가. <애프터양>은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단순한 소비 제품이 아닌, AI와 인간의 진정한 관계 맺기를 이야기한다. 제이크 가족은 ‘양’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만, 그는 말 그대로 가족이었기에, 작동을 멈춘 ‘양’ 앞에서 큰 상실감을 느낀다. 결국 ‘양’은 고칠 수 없었고, 이후 ‘양’의 중심부 기억 저장소에 파편처럼 기록된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제이크 가족은 그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또 그와 함께했던 일상, 그가 바라보고 느꼈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된다. ‘양’이 가족이 아니라면, 누구를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거 어느 날, 미카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한 이야기를 양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들이 “진짜 너의 부모는 어디 있냐”며 묻은 것이다. 입양아인 미카는 친구들의 질문에 반박하지 못했다. 그러자 양은 미카를 과수원으로 데려가 “접목”을 알려준다. 다른 종의 가지를 접붙여서 새로운 종의 나무를 만드는 접목으로 입양아 가족 구성을 설명해준다. 중국인으로 태어났지만 미국인 부모 슬하에서 자라고 있는 미카와 가족을 설명하는 접목은, AI인 양과 인간 제이크 가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할 것이다. 인간과 진정한 인간적 관계를 맺는 AI의 도래를 바라는 시선이기도 하다.



사진출처: (우영화특별시SM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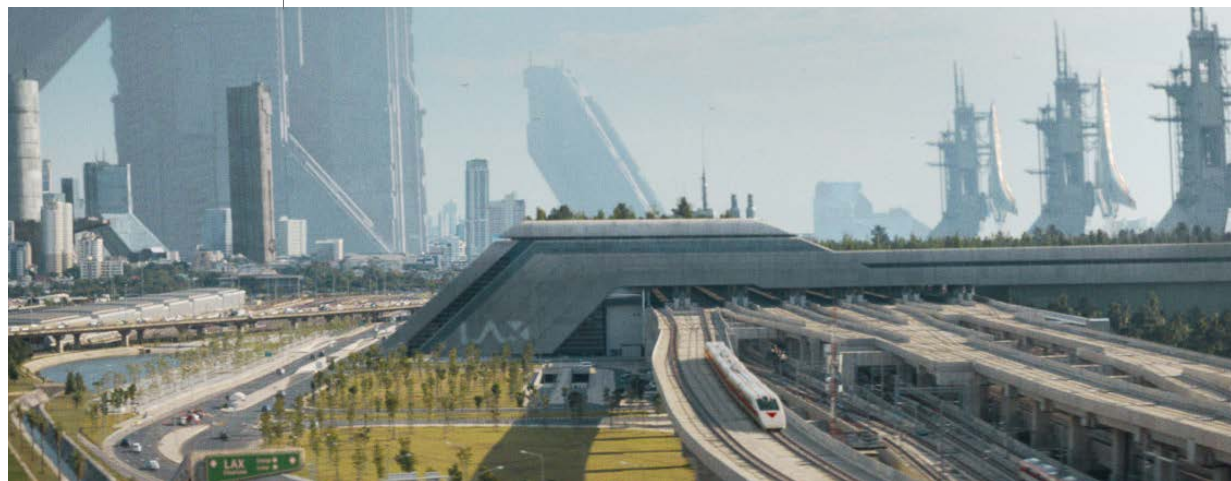


<크리에이터> 로봇과 인간 모두를 구원할 AI

<크리에이터>(2023)는 2065년, AI를 인류의 적으로 여기고 없애려는 인간 대 생존하려는 AI의 전쟁을 그린 영화다. 복제인간 AI ‘시물런트’를 활용해 초고도화된 인류의 어느 날, AI 오작동으로 인한 핵폭발 사고로 100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 이 사건 이후 서구사회는 AI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모든 AI를 없애려는 전투 기술을 개발한다. 그러나 뉴아시아에서는 AI의 개발과 사용이 지속되어 두 세계는 인류 존망을 걸고 전투를 벌인다. 이런 가운데 주인공 조슈아는 인공지능에게 창조주라고 불리는 ‘니르마타(NIRMATA)’를 제거하려는 비밀요원으로 뉴아시아에 잠입한다.

Movie Info

개봉 2023.10.03.
등급 12세 관람가
장르 SF, 액션
국가 미국
러닝타임 133분



누가 더 인간적인가

<크리에이터>에서 AI 파괴를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영화 속에서 미군은 명령만을 철저히 따르는 온갖 전투용 로봇을 활용해 뉴아시아의 AI 비밀 거점 기지를 파괴한다. 전 세계를 날아다니며 지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항공 전투함 ‘노마드’를 구축하고, 니르마타를 제거하기 위해 인간과 시물런트를 매정하게 이용한다. AI를 숨겨주는 인간마저 무차별 사살한다. 뉴아시아의 어느 민간인은 무자비한 미군을 향해 “너희들보다 AI가 더 인간적이어야”라며 쓴소리한다. 한편 영화 속 뉴아시아에서 시물런트는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TV가 만들어지듯 생산된다. 공유받은 인간의 얼굴과 외형을 가진 AI 로봇들이 끝없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시물런트에도 등급이 있어 단순한 프로그램이 복제된 것부터 감정을 느끼고 스스로 성장하는 것에 이른다. 농사를 짓고 아이를 돌보는 단순한 시물런트, 마치 스님처럼 무언가를 수호하는 시물런트, 자신을 희생해 동료를 구하는 시물런트, 급기야 인간을 사랑하는 시물런트가 등장한다. 인간을 복제한 로봇이 수없이 생산되고, 인간의 역할, 가치 판단, 감정을 모두 갖게 되는 AI 로봇의 존재라니. 이쯤되면 무엇이 더 인간적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을 구원할 아이

인간과 AI 간 전쟁은 다소 식상한 소재다. 그러나 이 영화의 흥미로운 점은 미군이 자신들의 적이 가진 최고의 ‘무기’라고

부르며 반드시 찾아 없애려 한 것, 그리고 AI 시물런트들 역시 끝까지 보호하려던 것이 바로 어린아이 모습의 시물런트라는 점이다. 자신들을 제거하기 위해 온 요원 조슈아와 사랑에 빠진 AI 설계자 여성은 둘 사이에 태어날 아이의 모습으로 모든 AI를 구원할 최고의 시물런트를 만든다. 그리고 그 아이의 프로그램에 인간을 향한 적대감이 아니라, 조슈아를 향한 사랑을 저장해둔다. 아이는 조슈아에게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AI도 구원하고, 끝없는 전쟁도 종식시킨다. 영화 속 ‘알피’라고 불리는 이 아이 시물런트는, 인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AI다. 즉, 인간 대 AI로 나뉜 구분과 대답이 아니라, 인간과 AI를 모두 아우르는 존재다. 그리고 건장한 성인 전사나 온갖 지식과 지혜를 가진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으로 세계를 구원하는 존재다. AI와 공존할 인류라는 미래를 상상할 때 그 주체가 아이라는 점에서, 어쩌면 오늘 자라나는 어느 아이가 새 세상을 열어주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펼치게 한다. 🤖

귀인보다 대인입니다

글_한귀은 경상국립대학교수·작가

귀인을 찾으십니까?

살면서 우리는 '귀인'을 욕망한다. 정월 초하루 사주라도 본다 치면, 귀인을 만날 것이란 말만 들어도 희망에 부른다. 귀인은 내게 복을 가져다줄 것이며, 나는 귀인의 에너지를 타고 부자가 되든지, 명예를 얻을 것이다. 내 주위에 누가 귀인일지 괜히 가늠해 보기도 한다. 만약 '새로운 귀인'이 나타난다면 도대체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지기까지 한다. 귀인이 안 나타나도 상관없다. 귀인은 '귀인'이라는 표지를 달고 다가오는 것도 아니며, 내가 '귀인(!)'이라고 규정만 하면 얼마든지 그(녀)는 귀인이 될 수 있다. 어쨌든 기분 좋은 일이다. 인간관계가 깊어지고 신뢰가 생기는 것 같다. 세상이 내게 우호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다. 배신감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내가 귀인이라고 짐작한 그(녀)가 나를 도와주는 커녕, 나를 이용하려 들 때다. 그 사람이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그(녀)를 귀인이라 규정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배신감이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 배신감은 내가 그(녀)를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다소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자. 귀인은 내게 이용가치가 높은 사람이다.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귀인은 사궐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사궐이 무언가의 수단이 되는 사람이다. '나는 귀인을 사용한다'는 명제가 지나치지 않다. 귀인을 욕망하는 마음이 윤리적이지 않은 이유다.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무언가의 도구가 될 때 그 관계를 온전히 윤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대인을 바랍니다

'대인(大人)'은 귀인과 다르다. 대인이 귀인이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귀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딱히 나와 구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다. 대인은 내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 자신이 대인(군자)이 되는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의미만 놓고 보면 '귀인'의 반대말이 '대인'인 셈이다. 귀인은 '내게 소용이 있는 사람'이고, 대인은 '소용과 무관한 사람'인 것이다.

주역에서도 '대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다.

飛龍在天(비룡재천) 利見大人(이견대인)
 승천하는 용이 하늘에 있는 것과 같으니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
 『주역』 중천건괘(重天乾卦)

'비룡'은 '대인'의 메타포다. 주역에는 '용'의 비유가 많이 나온다. '용'은 나는 용, '비룡'이어야 한다. 군자도 비룡이다. 그러나 '비룡'이 더 높이 오르려 하면 결국 사양길에 접어든다. '겸(謙)' 또한 군자의 필수 덕목인 것이다. 하늘을 나는 대인을 바라보며 나 또한 하늘을 나는 대인이 되되, 넘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 주역의 가르침이다. 주역에서는 대인과 사궐이라고 하지 않는다. 단지 '대인을 본다(見大人)'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하늘에 있는 대인을 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견(見)'은 '보이다'의 뜻도 있다.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로운 뿐만 아니라 '대인에게 보이는 것이 이롭다'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자신이 늘 대인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산다면 내 삶은 '군자'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인을 보면 '이롭다(利)'는 것도 '쓰임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대인'이 되고 '군자'가 되는 것에 이롭다는 뜻이다.

지천명, 하십니까?

주역은 3000년을 거슬러 내려온 책이다. 유교, 도교의 최고 경전이며, 공자가 가장 애착했던 경전이기도 하다.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칼 구스타브 융'도 주역으로 공부하고 점도 쳤다 한다. 융에게도 주역은 '역학'이자 '역술'이었던 셈이다. 정신분석학자 융은 주역의 문장이 무의식을 소환한다는 말도 했다. 실로, 융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개성화(individuation)'는 '군자'의 개념과 접점이 있다. 개성화는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나 자신'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타고난 기질을 알고 기질대로 산다는 뜻이다. 융은 중년에 이르러 '개성화'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한다. 공자가 말한, 지천명(知天命)과도 통한다. 주의할 것이 있다. '나는 이미 나'라는 확신을 버려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그런 확신이 있다면 자신을 전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개성화의 길, 군자와 대인으로의 여정은 '하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나의 뜻'이 아니다. 귀인보다 대인을 더 회귀해야 하는 이유다. 🌱



제임스 본드 같이
멋진 분위기의 캡틴장을
보여주는 캐릭터

by 웹툰작가 배민기

STORY OF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여
부산 경제 발전에
헌신해온 캡틴장**

01



- ① 부산상공회의소 제24대 회장 출마 선언('21. 3. 8)
- ② 제24대 의원부 출범식 및 회장 이·취임식('21. 3. 22)
- ③ 부산상공회의소 윤리강령 선포식('21. 6. 21)
- ④ 부산시-부산상의 정책협력 간담회('21. 4. 28)
- ⑤ 부산시-부산상의 경제협의체 대표회의('21. 12. 20)
- ⑥ 박형준 시장 초청 정책간담회('22. 6. 16)
- ⑦⑧ 전국상의 회장단 회의('22. 4. 22)
- ⑨ 부산경제계 신기업가 정신 선포식('23. 2. 22)



캡틴장 3년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해온 캡틴장**

02



- ⑩ 2020 두바이월드엑스포 현장 참관('22. 1. 14)
- ⑪ 경제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대회('22. 4. 22)
- ⑫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홍보 엄지척 오디션('22. 4. 26)
- ⑬ BIE사무총장 초청 간담회('22. 10. 28)
- ⑭ 2030부산월드엑스포 커피 에디션 출시('23. 2. 16)
- ⑮ 제172차 BIE총회 참가('23. 6. 17)



지역 스타트업 발굴 및 생태계 조성 선구자 캡틴장

03

- ⑥ 부산스타트업데이 99도('21. 12. 3)
- ⑦ 이노베이션 밋업 페스티벌 99도('22. 10. 12)
- ⑧ 2023 SLUSH'D×99℃('23. 6. 29)
- ⑨ KNN 스타트업 캠페인('22. 6. 8)

지역기업 애로 해소와 산업현장 규제 개선에 힘써온 캡틴장

04

- ⑩ 한덕수 국무총리 부울경 기업 현장 간담회('23. 3. 21)
- ⑪ 부산 윈스톱 기업지원센터 개소식('23. 5. 23)
- ⑫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23. 3. 7)

지역경제 주요 현안 해결에 앞장서온 캡틴장

05

- ⑭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초청 부산경제포럼('23. 4. 12)
- ⑮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 출범식('23. 9. 26)
- ⑯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통과 촉구 결구대회('23. 11. 3)
- ⑰ 부산상의-부산시 에어부산 분리매각 협조 요청문 전달('23. 12. 12)
- ⑱ 에어부산 분리매각 추진협의회 구성('24. 1. 29)

활발한 소통의 아이콘 캡틴장

06

- ⑳ 부산상의 회장단 르노코리아자동차 현장 방문('21. 7. 1)
- ㉑ 제12기 글로벌 경제인 과정 수료식('24. 1. 9)
- ㉒ 제41회 부산산업대상 시상식('23. 11. 23)
- ㉓ 부산상공회의소 창립 133주년 기념식('22. 7. 19)
- ㉔ 제24대 회장단 명지어린이집 방문('23. 3. 16)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에 앞장서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들이 혁신과 경제 성장을 주도하면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도시와 국가에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 투자자 및 자원을 유치하는 활기찬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투자하고 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과 고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투자펀드 조성에서부터 회수까지 전반적인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는 지역 유일의 기관이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교류 공간

스타트업의 성장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유일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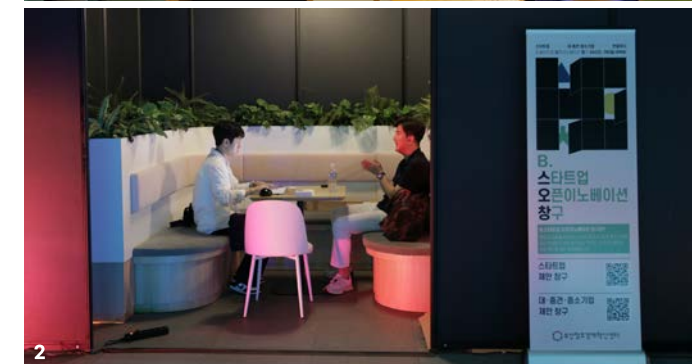
2015년 3월에 설립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수많은 스타트업을 육성하며 부산지역 공공액셀러레이터로서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 100억원 내외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법인으로, 2022년에는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이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부산창경은 지난 2019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창업 기획자)로 등록되어 공공에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아울러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전 단계에 걸쳐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비즈니스 고도화 및 기술 사업화, 투자유치를 위한 멘토링 등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또한 분야 별 공모전 운영과 입주 시설 지원, 투자유치를 위한 주기적인 IR행사와 투자사들과의 네트워킹 지원 등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인구감소 대비책의 일환으로 역외 스타트업 유치와 생활인구증가를 꾀한 위케이션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다.

투자자 오픈이노베이션으로 차별화를 꾀하다

부산창경은 스타트업 투자와 오픈이노베이션 집중 육성을 통하여 창업전문기관으로서의 차별화를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스타트업 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인데 부산창경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

는 민간 투자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30회가 넘는 IR을 통해 수도권 AC, VC 및 지역 AC, VC들의 간접 투자 연계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지역 스타트업들과의 스킨십을 돕고 있다. 또한 센터가 직접 3개의 투자펀드도 조성하여 유망한 스타트업의 경우 센터가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 파트너기업인 롯데벤처스와 투자펀드 2개를 조성하였고, 스타트업 초기 투자 전문AC인 씨엔티테크와 개인투자조합을 조성하는 등 투자수익 100%를 스타트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투자기업에 대한 센터 후속 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Scale-up 지원도 가능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타 유관기관 대비 특별한 점은 바로 파트너기업이 매칭 되어있어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업한다는 점이다. 부산창경의 파트너기업 롯데 내 10개 계열사와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내 대·중견기업들과의 파트너십도 계속해서 확대 중이다. 특히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진행 중인 '스타트업 99℃'와도 협력하며, 청년 창

- 1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B.Cube 센터 입주기업실
- 2 BOUNCE2023 컨퍼런스 오픈이노베이션 상담 창구





업가와 선배 기업인들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는 장인화 이사장의 뜻에 따라 지역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오픈이노베이션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민간 협력 파트너와 다양한 성과 창출

부산창경은 지난 8년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2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배출하고 3,300명 이상 고용 창출, 투자 184건 및 700억 원 이상 투자연계 등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예비·초기창업패키지를 포함해 매년 20여개가 넘는 지원 사업을 통해 250여개 이상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민간 협력 파트너(AC·VC 및 대·중견기업)와 함께 직간접 투자연계, 실무 부서와의 PoC·사업제휴 매칭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부산창경이 조성한 3개 펀드(약 30억 원)로 19개사에 16.7억 원 투자를 실행했고, 그 중 부산 스타트업 비중이 17개사 15.2억 원으로 지역 스타트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19년부터 진행되어온 오픈이노베이션

롯데-BCCEI 스타트업 펀드 1호 결성총회 단체사진



1 Busan ESG 얼라이언스 출범식
2 부산상의 공동 주최한 이노베이션 밋업 페스티벌 99°C 장인화 이사장 인사말
3 2023 BEF x ESG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용우 센터장

챌린지는 20개 이상의 대·중견기업과 12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작년엔 롯데웰푸드, DRB, 조광페인트,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15개 파트너사가 함께 했고, 특히 DRB, 시티캡, 조광페인트와 같이 부산중견기업-부산 스타트업 간 PoC, 밋업 매칭 추진 등 지역 오픈이노베이션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동남권협의회, 단디벤처포럼, 파운더스, 부산벤처투자포럼, 부울경관광벤처협의회 등 부산 지역 민간 스타트업 단체들과의 협업 및 행사 공동 개최로 민간 주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해오고 있다.

스타트업을 위한 컨퍼런스 BOUNCE 개최

부산창경 대표 행사인 스타트업 컨퍼런스 BOUNCE는 지난 2017년부터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매년 새로운 스타트업 및 VC, 생태계 관계자들을 지역으로 유입시키고 확대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고 있다. 작년에 개최된 BOUNCE 2023에서는 '지역창업생태계', '연결'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약 1,000여명 이상의 창업 생태계 플레이어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스타트업 364개사, 투자자 33개사, 대·중견기업 26개사, IR 피칭 31개사가 참여했고, 267건의 밋업 매칭을 통해 투자 유치 20억, 투심/투자 검토 6개사, 후속미팅 24개사 45건 등의 후속 성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동구에 개소한 위케이션 센터는 1년도 안 돼 누적이용객 1000명이 돌파하였고,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경제 파급효과를 추산했다. 그 결과 부산 지역 내 생산 유발 효과 42억 원, 투자 유발 효과 17억3000만원, 고용 창출은 45명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형 위케이션을 통해 현재까지 768명의 생활 인구가 유입됐고, 1인당 소비금액은 103만원으로 집계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

혁신 스타트업 적극 발굴 및 오픈이노베이션 기능 강화

부산창경은 지역주력산업 또는 초격차·딥테크 분야 혁신 스타트업 중심 발굴 육성하는 등 기술기반 스타트업 집중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매년 정해진 기간에 공모를 진행하던 것

BOUNCE 2023 컨퍼런스 '리모트워크'



에서 탈피하여 매일 상시적으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심층 오픈이노베이션을 지원하고, 유망스타트업의 경우 센터 사업, 투자 연계, 외부 연계를 통해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오픈이노베이션, 투자 기능을 고도화 하고 글로벌 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Top-Down형태에서 Bottom-Up 트랙을 더하여 센터만의 독보적인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확보하고, 또 민간 투자파트너와 공동 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 발굴 채널 및 펀드 규모를 확대하여 TIPS 운영사 선정 등 센터 펀드 운용의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위케이션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용한 글로벌 인바운드/아웃바운드도 활발하게 추진하고자 한다.

BUG's DAY PPL in 부산



StartUP 지역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소개합니다

공정제어 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발전을 꿈꾸는 주식회사 제이제이앤컴퍼니스

제이제이앤컴퍼니스는 공정제어, 인공지능, 해양공학 등의 핵심기술을 통해 환경, 항만 그리고 선박과 관련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해양엔지니어링 기업으로 현재까지 25억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온 유망한 스타트업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중생물 생체정보 분석시스템 '비츠'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선박용 대체연료 공급장치 통합제어 시스템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발전을 위한 사업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2022 Dubai Korea Innovation Fair에서 박형준 사장에게 브리핑하고 있는 전정호 대표



2022 Nexrise VIP 초청 브리핑

제이제이앤컴퍼니스의 시작

제이제이앤컴퍼니스는 2019년 1월 설립되었으며, 전정호 대표는 선박 항해사로 커리어를 시작해 선박, 해양 플랜트의 통합제어 시스템을 공급하는 외국계 기업에서 엔지니어, 인스트럭터, 영업사원 등 20여년 동안 해양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전정호 대표는 특히 해양플랜트, 첨단 가스선박에 적용된 자동제어 시스템의 정교함과 수중 로봇, 수중통신, 자율운항 등의 기술들이 어떻게 개발되고 적용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었다고 말한다. 결정적으로 2017년 해양플랜트 기술로 건조한 세계 최초, 최대의 양식설비 프로젝트를 보며 의미있는 프로젝트를 우리의 기술로 직접 해보고 싶어 창업하게 되었다고 한다. 제이제이앤컴퍼니스는 양식산업에 먼저 주목하였다. 2019년 유례없는 고수온으로 물고기 폐사와 적조가 두드러졌던 그 해, 순환여과라는 육상양식기술을 알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어촌은 대체로 인구부족, 고령화 문제와 기후변화까지 심화되는 국면이라 자동화를 통해 수질을 파악하고 어류의 상태에 따라 최적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공정 자동화를

JJ&COMPANIES



VIITS 메인 화면과 VIITS REPORT

설계하면서 어류의 성장이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 장치 및 기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계기로 영상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딥러닝 어류 생체정보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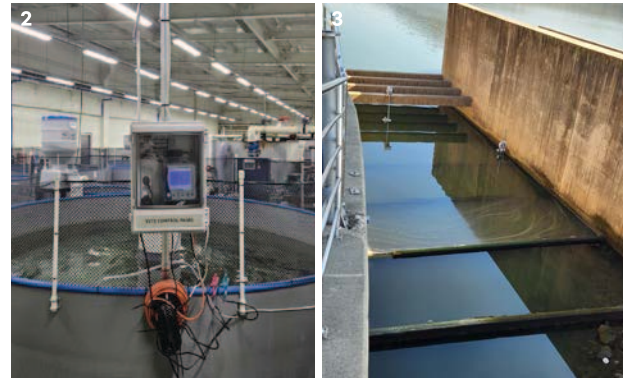
'비추다'의 '비츠'

제이제이앤컴퍼니스의 VIITS(Visual Information Integration Technology System)는 단일 수중카메라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움직이는 어류의 생체정보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어체 표면에 발현되는 특징을 기반으로 성장일, 크기, 질량을 예측하고, 행동을 통해 활동성을 분석할 수 있고, 외형과 행동으로 일부 질병을 판명하고 어류의 생체정보와 센서를 통한 다양한 수질 정보를 통해 어류의 성장 상태와 생존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하천이나

해양 환경이 수중생물인 어류에게 적절하지, 기후변화 또는 오염에 의해 생태 회복성이 저하되지는 않았는지를 알 수 있고, 기후변화에 따라 어류의 서식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이후에 변화할 수중생물의 분포 등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운용 중인 양식장에서는 사료효율을 개선하거나 질병 관리 및 예방 차원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물고기의 상태에 따라 수질을 자동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자율제어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고 한다.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츠

현재 '비츠'는 우리나라 전국의 부산, 강원도, 경남, 전북 등의 수산자원연구소 및 종자연구센터와 미국 미시건 호(The Lake Michigan)의 UWM 담수연구센터에도 설치되어 다양한 형태의 어류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 한편, 작년 가을부터 수자원공사와 주요 강, 하천의 소상어류의 생태를 감지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류의 생태 뿐만 아니라 어도의 효율성 및 하천의 생태계 변화 관찰, 추적감시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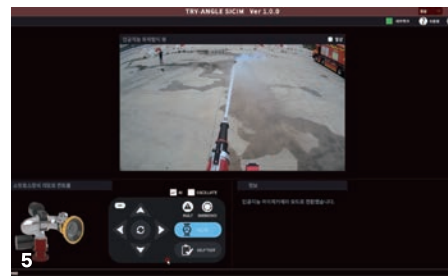


1 UWM Fresh water Science, VIITS PoC 구축 협의 모습
 2 국내 최초 대서양 연어 생애전주기 데이터 분석 적용 현장 (VIITS 강원도화동해내수면자연센터)
 3 VIITS 수중생태분석 목적 낙동강 함안보 어도 내 설치현장

- 4 SICIM 화재 진압 RCM(Remote Control Machine)
- 5 SICIM 프로그램 Main 화면
- 6 현대에버다임 실증 현장



제이앤컴퍼니스의 '비츠'는 다양한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시스템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류의 생체정보 분석시스템은 신기술로 지정되어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국내외 우리나라와 부산을 대표하는 기술기업으로서 전시회 등에 참여하며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Vision AI를 활용하여 실시간 화재 영상을 탐지하고 추적 및 진압하는 지킴(SICIM)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SICIM은 일반 카메라로 화재 영상이 탐지되면 인공지능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화재의 위치를 분석하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설비들의 제어에 필요한 다양한 벡터를 도출하여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화재를 탐지하고 진압하는 시스템이다.



제이제이앤컴퍼니스 전정호 대표와 직원들

지금 위기를 통해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자산 '동료'

제이제이앤컴퍼니스는 2020년 초 갑작스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갑작스레 모든 활동이 중단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 없이 IR을 했지만 번번히 실패를 했고, 매번 거절당할 때마다 투자자들에게 어떤 부분을 보충해야 할지,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물으며 준비하던 중, 한-덴마크 수교 60주년 행사에서 알게 된 더벤처스와 적극적으로 투자를 논의하게 되었다. 투자 실사 동안 대표 두 분과 제이제이앤컴퍼니스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고 받았고, 며칠 후 투자 결정 소식을 접하였다. 투자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미팅 중에 팀원들이 회사가 얼마나 괜찮은 회사 인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결정적인 인상을 심어 줬다고 하였다. 그렇게 더벤처스 투자 유치 이후 회사 운영을 위한 필요 자금을 모두 유치하게 되었고 이때를 계기로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하는 팀워크와 헌신하는 동료애가 회사 운영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전환과 기회, 그리고 도약

제이제이앤컴퍼니스에는 해양 및 조선 분야의 제어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들이 많은만큼 2022년 가을 전문분야이자 목표시장인 선박용 가스연료 공급장치(FGSS: Fuel Gas Supply System) 제어시스템 사업에 다시 도전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해 가스연료 공급장치와 선박 주요 설비를 하나의 모듈 유닛으로 제작하는 기술력을 갖춘 해당분야 세계1위 기업인 선보공업과 2022년 11월 업무협약을 맺고 기술협력을 통해 COSMOS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COSMOS의 핵심 기능은 모듈화된 기능단위로 동작이 가능하도록 기본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었는데, 1년 간의 개발을 통해 2023년 10월, 4년 만에 개최된 세계적인 조선기술 전시회인 Kormarine 행사를 통해 조선소, 선주 등 관계자들 앞에서 COSMOS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COSMOS는 다양한 해양에서의 제어 시스템 경험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황인지, 특징분석 및 예측 모델 개발 역량에 선보공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융합한 시스템이다. 제이제이앤컴퍼니스는 COSMOS를 통해 해외 제품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해양 및 선박의 제어시스템을 국산화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전정호 대표는 "아직 사업적 성공을 이뤘다고 하기에 아직 이르지만 회사의 경영이 6년 차에 접어든만큼 앞으로 누군가 제이제이앤컴퍼니스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도울 수 있는 기업이자 지역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하며 "항상 그랬듯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2023 KOMARINE 기간 중, 선보공업 세미나에서 선보인 협업 Project 'COSMOS' 를 설명하는 모습



단통법

10년 만에 추진하는

폐지

최근 정부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규제 개혁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내용중에는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흔히 말하는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단통법이 폐지되면 소비자 및 통신업계에 다양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만큼 단통법 폐지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시행된 단통법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행 후 단통법은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제한해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반면, 단말기 가격이 오르면서 오히려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또 휴대폰 판매자들이 판매점을 '뺏다방' 형태로 만들어 판매장려금을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불법 판매 행태도 성행했습니다.

단통법 전면 폐지 추진

그간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구입 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단통법 폐지가 결국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단말기 가격의 인하로 이어질지의 여부가 중요할텐데요. 단통법 폐지로 인한 통신비 인하여부에 대한 의견은 갈립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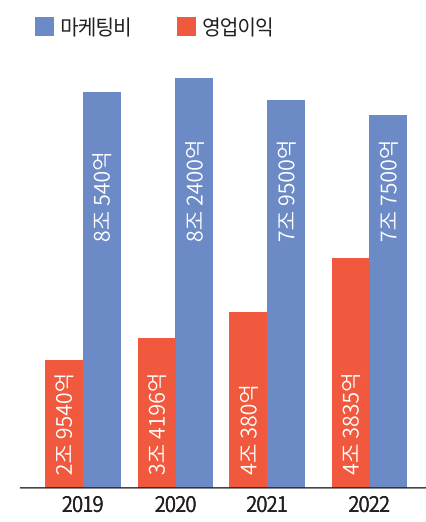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통신사의 마케팅 경쟁이 시작되면 통신사들이 어느 한 곳부터 보조금을 높이면 결국 다른 통신사들도 따라가게 되어 가격 인하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업점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면서 비싼 요금제를 쓰도록 유도하거나, 통신사들이 고가의 모델에만 지원금을 집중한다면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단통법 개정안으로 추가지원금 한도가 기존 15%에서 30%로 상향되었지만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이 크게 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 5G 가입이 정체기에 접어들어 마케팅 경쟁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렇게 달라져요

단말기는 더 저렴하게, 요금할인은 그대로

	폐지 전	폐지 후
사업자		
단말기 지원금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	제한없는 지원금 경쟁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비	과도한 단말기 구입비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
요금 할인	선택요금 할인	선택요금 할인유지
규제 체계	지원금 규제	시장 자율

통신3사 마케팅비 및 영업이익의 추이



자료: 각 통신사

앞으로의 영향은?

단통법 시행 이후 줄어든 마케팅비가 통신 3사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지난 2021년 통신 3사의 합산 영업 이익은 최초로 4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단통법 폐지로 다시 마케팅비가 오르고, 중간 요금제나 3만원대 요금제 등으로 이익이 줄어들면 통신사들의 실적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의 여파가 미치게 될 또 다른 곳으로 제4이동통신사가 꼽힙니다. 정부가 통신 3사의 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선정하고 있는 제4이동통신사가 높은 주파수 할당 비용, 통신망 구축 비용 등과 더불어 통신 3사와의 지원금 경쟁 비용까지 부담한다면 시장에서 쉽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국회 입법사항으로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당장 혜택을 보기는 어렵지만 벌써부터 단통법 폐지에 관한 소비자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단통법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고 유통점주들과 더불어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만큼 단통법 규제가 사라지는데 향후 국회의 논의가 빠르게 이어질지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위한 리더십

글_ 이민영 TND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소장



주요 약력

- (현) TND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소장
- (현) 현대그룹 현대인재개발원 전문교수
- (전) 한국사이버 대학교 겸임교수
- (전) 건국대, 순천향대 등 외래교수

방송

- EBS 뉴스브릿지(2022-2023)
- 세바시인생질문(2022)
- TV조선 킹스맨(2020)
- KBS 사장님이 미쳤어요(2018) 등 다수 출연

주요저서

- 포스트챗GPT 역량 답다이브(2023)
- 젊은 끈대가 온다(2022)
- LookBack: 뒤돌아보게 만드는 힘(2015)
- 말은 어떻게 공감을 얻는가(2015)
- 당신없는 회사에 가고싶다(2014) 등

조직문화란 무엇인가

조직문화란 구성원들로 하여금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석과 행위를 불러 일으키는 조직 내에 공유된 정신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혁신이란, 묵은 풍습,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혁신적인 조직문화란 기존의 조직에 공유된 정신적인 가치를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더욱 쉽게 설명해 보겠다. 조직문화란, 회의 문화, 보고문화, 퇴근문화, 회식문화 혹은 갑질문화 등으로 설명되는 ‘문화’라는 것이라 보면 된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 내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하는 부분을 찾아 낸다. 그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는 작업들이 이어진다. 예를 들어보자. 어느 조직의 조직진단 결과 습관적인 야근문화가 있다 거나, 형식적인 보고로 너무 많은 업무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 되었다고 치자. 조직문화팀이나 외부 컨설턴트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도출하게 될 것이다. 이미 많이 들었겠지만, 6시 이후 소동, one page 보고서 등이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등장한 업무 방식이다.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위해회의를 위해서 반듯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바로 리더들의 리더십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리더가 조직문화 개선에 의지가 있어야 한다. 관행을 그대로 따르는 것에 대한 불만이 없으면 굳이 조직문화에 손을 대려 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해. 지금이 딱 좋아.” 라는 생각으로는 시장의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조직문화를 왜 논해야 하는가

조직문화는 바로 일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이다. 이 일하는 방식이 곧 성과로 연결되는 것일테니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신입사원의 25%는 입사 후 1년 이내에 퇴직을 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있다. 어차피 조직은 Up and Out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 퇴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1/4이 1년 이내에 퇴직을 한다거나, 혹은 한 직장의 평균 근속 년 수가 5년 남짓이라는 통계를 보면, 한국 사회도

대퇴사시대를 맞이한 듯 하다. 이런 자연스러운 퇴사문화가 걱정스러운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조기 퇴사율은 기존 구성원들의 퇴사율도 함께 높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로 일하는 방식이 정해진다. 현재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보다는 업무 중 채용 사이트를 뒤져가며 이직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잘 알고 지내는 팀장님이 한 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다. 업무를 줄 때마다 “왜 해야 하죠? 제가요?” 라는 반문을 하는 직원이 있었다고 한다. 1on1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직장 내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료들이 주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부추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바로 부정적인 투덜이 문화에서 지내다 보니, 본인도 알게 모르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전염이 된 것 같다고 하더라. 필자에게 “긍정의 마인드셋”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의뢰하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주는 것 같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라는 속담을 잘 알 것이다. 조직문화는 이런 것이다.

어떻게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만들 것인가

조직 내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잘 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전문가를 통해 찾아보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나 규모가 작거나, 스타트업으로 아직 조직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직원들끼리 워크숍을 통해 조직문화와 관련한 의견을 들어보는 방법도 있다. 또는 리더가 직원들과 1on1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구성원들이 부담스러워 이야기를 잘 못한다면, 디지털 툴들을 이용해, 무기명으로 의견을 도출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의견이 나왔다면,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행동 전략을 도출 하자.

- ☑ 회의가 너무 길다 → 회의 규칙 만들기. 30분 이내 종료
 - ☑ 회식을 너무 자주 한다 → 팀원들끼리 회의를 통해 적당한 회식 횟수 정하기. 자율적인 참여를 지향한다.
 - ☑ 보고 라인이 너무 많다 → 팀장 전결 처리를 한다. 전자 결재시스템으로 결재를 간소화한다.
 - ☑ 군대조직 같은 느낌이 든다 → 부드러운 언어 사용하기. 일주일에 한 번 서로 칭찬릴레이 타임 갖기
 - ☑ 불필요한 보고서가 너무 많다 → One page 보고서 작성, 파워포인트 사용 금지
- 쉬운 예를 들어보았다. 위에 제시한 것만이 꼭 정답은 아니다.

조직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마다 서로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내가 참여했던 기업의 조직문화 개선 전략에는 ‘118회식’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한가지의 술로, 일차만, 8시 전에 마친다.”이다. 회의 문화에 대해서는 “월, 금 회의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아마 그 이유를 잘 알 것이다. 대단한 조직진단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단한 전략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용을 해 보면 된다. 전사가 함께 하지 않아도 된다. 처음에는 몇몇 팀만 파일럿으로 참여를 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전사로 확대하는 방법을 사용하자.

C레벨의 리더십과 조직문화

이런 문화를 바꾸는데, 그럼 C레벨의 리더십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고 의구심을 갖는 이가 있을 것이다. 일 개 직원들도 서로 동료들에게 영향을 받는데, 영향력이 큰 C레벨의 경우 그 영향력은 얼마나 클 것이냐 말이다. 회식의 경우도 팀장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다. 어떤 메뉴를 주로 선택하는지, 장소는 주로 어디로 정하는지, 참석을 꼭 해야 하는 문화인지, 자율적으로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인지 말이다. 일개 팀의 문화도 팀장에 따라 다른데, C레벨에 따라 조직 전체의 문화가 움직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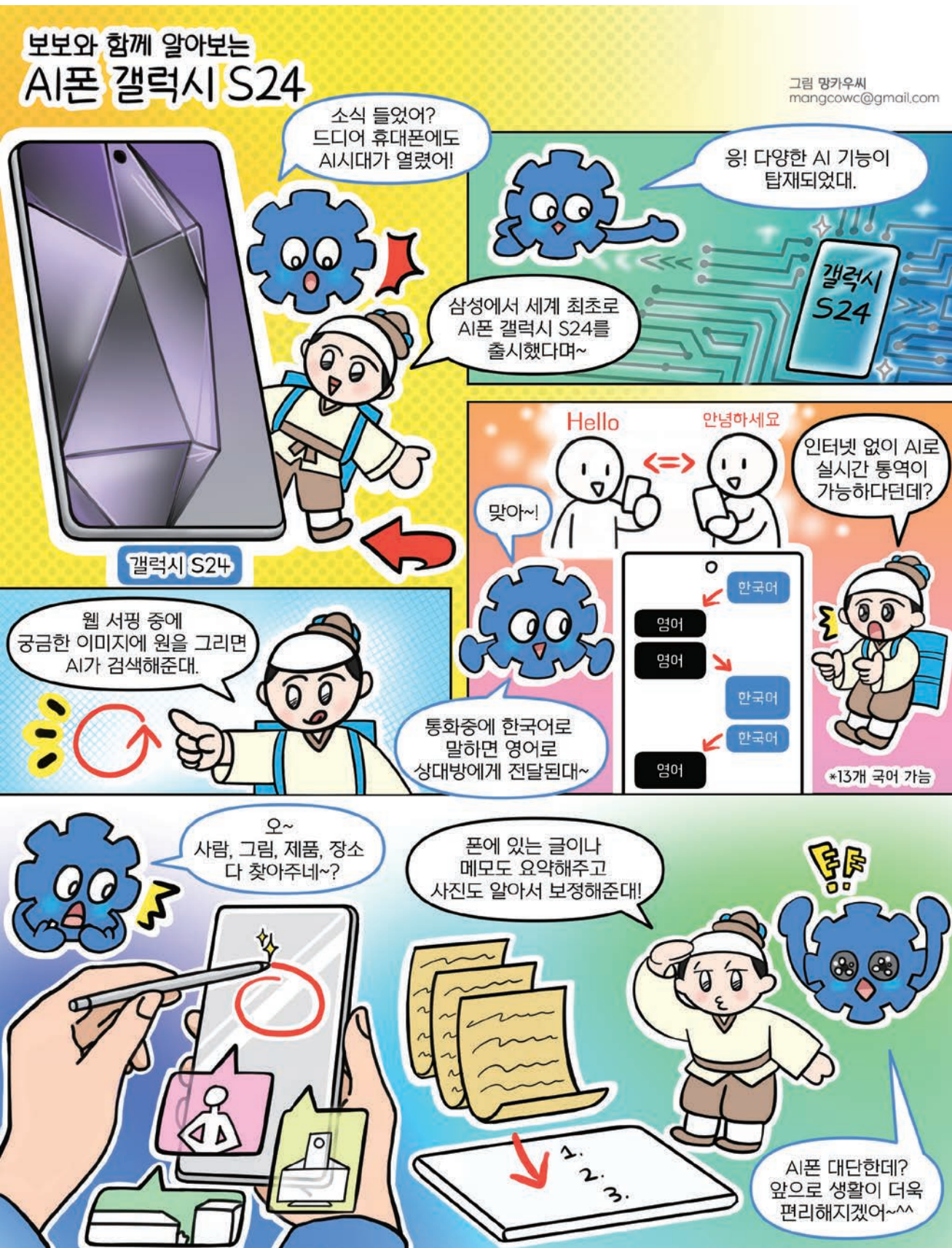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위한 필수사항

- ☑ C-레벨 리더들은 조직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그 중 CEO는 조직문화 형성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 ☑ 우리 조직에 조직문화 담당자가 있는가?
- ☑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문화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

실천 Tip

- ① CEO는 구성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다. 그 안에서 조직문화를 느껴보자.
- ② CEO가 추구하는 조직문화 상을 정의해 보자.
- ③ 우리 조직에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선택한다.
- ④ CEO가 먼저 전략을 도출하여 행동으로 보여준다.





세계 최초 AI(인공지능)폰 갤럭시 S24 출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화두로 떠오르며, 향후 인류 문명 발전의 핵심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최근 아이폰 갤럭시 S24를 출시하면서 휴대전화에도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휴대전화에 AI를 탑재한 첫 모델

삼성전자가 최근 갤럭시 S24를 공개하며 스마트폰을 넘어 새로운 AI폰의 시대를 예고하였는데요. 갤럭시 S24는 온디바이스와 클라우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AI기술인 갤럭시AI를 통해 다양한 AI 기능을 구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전화, 문자, 검색, 노트, 카메라, 사진, 영상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AI가 적용됨으로써 한층 더 새롭게 진화된 휴대전화라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실시간 통역 기능

갤럭시 S24의 가장 주목받는 AI기능은 단연 '실시간 통역(Live Translate)' 기능입니다. 실시간 통역 지원 언어는 한국어, 중국어(간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힌디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태국어, 베트남어 총 13개 언어이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은 그동안 통역을 위해 인터넷을 접속하거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른 앱을 사용해야했지만, 갤럭시 S24는 온디바이스 AI를 바탕으로 인터넷 없이 실시간 통역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인이 영어권 사람과 통화를 할때 한국말로하면 상대방은 영어로 통역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도 원하는 언어로 오프라인으로 바로바로 번역해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연결없이 상상 할 수 없었던 기능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원을 그려 검색하는 서클 투 서치

갤럭시 S24는 AI를 활용하여 검색 기능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구글과 협업하여 개발한 '서클 투 서치' 기능을 활용하면 웹이나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등을 보면서 궁금한 이미지에 동그라미만 그리면 AI가 알아서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 웹 서핑 중 궁금한 사안이나 정보 확인을 위해 검색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검색 창을 켜지 않아도 동그라미를 그리기만 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웹 서핑 중 보고있는 옷이나 신발, 가방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싶으면 그 이미지에 동그라미만 그리면 바로 구글에서 그 이미지에 대한 각종 정보를 알려주는 식입니다.

이외에도 각종 다양한 AI기능 탑재

세계 최초 AI폰이라는 수식어에 맞게 실시간 통역과 서클 투 서치 외에도 삼성 노트 앱 내 글이나 메모를 AI가 요약해주는 기능과 AI가 사진을 분석해 그림자 및 반사 등을 알아서 제거하는 기능, 사진 속 사람만 따서 이동하거나 잘린 배경을 알아서 채워주는 기능 등 다양한 AI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갤럭시 S24를 출시하면서 스마트폰을 넘어선 새로운 AI폰 시대를 연만큼 향후 더욱 다양한 AI기술이 접목된 휴대전화들의 출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편리해질 거 기대해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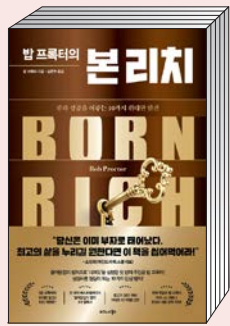
지식의 창고

1

밥 프록터의 본 리치

부와 성공을 이루는 10가지 위대한 발견

밥 프록터 | 비즈니스북스 | 16,800원



부자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웃집 100억 부자가 당신일 수도 있음을 믿지 않는가? 밥 프록터에 따르면 우리 모두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다. 《밥 프록터의 본 리치》에 담긴 이론과 실천 방법들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밥 프록터는 이 책을 쓰기까지 40년 동안 이 방법들을 개인적으로 검증해왔다. 본인 스스로 검증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그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여해 이를 직접 증명해 보였다. 삶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사람들이 밥 프록터가 제시한 방법을 따르면서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이 책은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와 실질적인 방법론을 통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지름길로 당신을 안내한다. 우리가 내면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부를 끌어당겨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돕는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이들, 부동산과 주식에선 답을 찾지 못한 이들,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꿈을 접은 이들, 새로운 삶을 원하는 이들에게 이 책이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되어줄 것이다.

2

나는 직원 없이 혼자 일하면서 연봉 10억 번다

자본과 인력, 시간 없이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7가지 성공 전략

최창희 | 책들의정원 | 18,000원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누구나 막막할 수 있다. 성공이란 아주 먼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길은 반드시 있다. 적은 창업 자본으로도 10억 연봉을 가뿐히 넘긴 이들의 전략을 따라가 보자. 이 책은 직관적이며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7가지 전략을 사례와 함께 제시한다. 소규모 비즈니스 성공 사례를 연구하며 자신도 1인 기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창희 대표는 지난 10여 년간 수백 건의 성공 사례를 조사해 공통점을 발굴하고 그 결과물을 책으로 썼다. 1인 기업가는 혼자서 수많은 역할을 해내야 하기에 언제나 바쁘다.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기본부터 생각하지 못한 노하우까지 꼼꼼히 살펴볼 기회를 이 책이 제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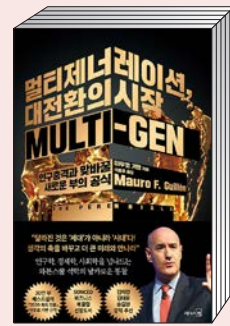
3

멀티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

인구, 경제, 기술 변화가 초래할 멀티제너레이션 시대를 예견하다

마우로 기엔 | 리더스북 | 21,000원

글로벌 트렌드와 국제 비즈니스 전략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2030 축의 전환』 저자인 마우로 기엔 와튼스쿨 교수의 신작으로 다시 한 번 충격적인 미래를 전망한다. 저자는 최대 10세대가 공존하게 될 멀티제너레이션(Multi-generation) 사회를 예고하고, 앞으로 달라질 부의 속성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멀티제너레이션 시대에 부와 기회는 어디서 창출되는가? 과학기술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빠르게 노후화시키는 데 우리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하는가? 부동산, 일자리, 복지 이슈, 기후 불평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기업은 잠재적 인적 자원과 소비 주체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 책은 오늘날의 인구, 경제, 기술 변화가 거대한 물결을 이루며 세계 경제와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전환 과정에서 생겨나는 기회와 위험은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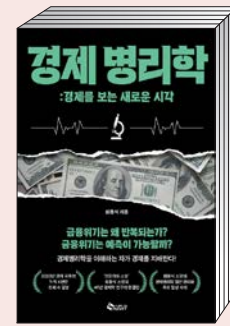
4

경제 병리학

경제병리학을 이해하면 경제위기를 예측할 수 있다!

최용식 | 새빛 | 22,000원

경제의 앞날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개인과 기업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할까? 정부는 우리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정책 처방을 해야 할까? ‘경제병리학’의 저자 최용식 소장은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를 경제병리학의 관점에서 새롭게 진단하고, 그 진단을 바탕으로 정책 처방을 하거나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현 경제학에는 경제병리학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경제학은 경제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여 성립했으므로, 경제병리학은 진즉 태어나 발전해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경제체보다 월등히 뛰어난 인체를 위해서는 생리학 보다는 병리학이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하게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40여 년의 집요한 연구 끝에 ‘경제병리학’을 새롭게 수립했다고 이 책에 연구한 결과물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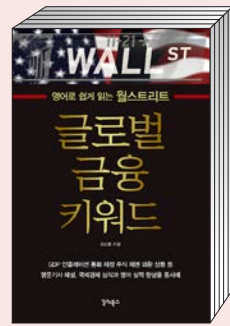
5

글로벌 금융 키워드

글로벌 경제와 금융 시장 그리고 영어에 관한 책

김신희 | 갈라박스 | 19,000원

이 책은 글로벌 경제와 금융 시장에 관한 책이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주요 지표 및 정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이슈를 선별해 키워드로 정리했다. 뉴스 등을 통해 일상에서 익숙하게 들었던 경제, 금융 용어들이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궁금했던 내용들이 쉽고 친절하게 해설돼 있다. 선별된 키워드는 총 10개의 챕터로 구성돼 있다. GDP, 인플레이션, 고용, Fed와 통화정책, 재정정책,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상품시장, 위기 등이다. 모두 국제 경제와 금융시장에서 중요성이 높은 주제들이며,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과 시장에도 민감하게 연관돼 있는 내용들이다 📖



동아플레이팅(주)

이오선 대표, 부산아테네포럼서 기업가 정신 강연

동아플레이팅은 2월 5일 중구 보수동 아테네학당에서 개최된 부산아테네포럼 시민아카데미 시즌2에서 이오선 대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였다고 밝혔다. 강연에서 이오선 대표는 '혁신기업 동아플레이팅의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스마트공장계 BTS라 불리며 삼성이 찾는 기업, MZ가 좋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과 동아플레이팅이 추구하는 경영가치를 소개하였다. 동아플레이팅은 3D업종의 대표인 도금공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여 지역 인재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으로 꼽히는 지역의 대표적인 도금 기업이다.



희창물산(주)

권중천 회장 수출시장 개척 공로 '제9회 수산대상' 영예

희창물산은 1월 30일 부산수산정책포럼 2024년 정기총회에서 권중천 회장이 '제9회 수산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수산대상'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현안 과제 발굴과 창조경제를 통한 수산업 미래 산업화 방향 모색, 비전 제시 등으로 수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주어지는 의미 있는 상이다. 권중천 회장은 한국산 수산물 수출시장 개척과 수산 냉동냉장업계를 국가 기간 산업으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으며, 또한 냉동 수산물 선진화를 위한 신기술 보급과 전국 수산물 산지 어업인과 직거래 체계를 도입하고 모범적인 기업 윤리 확산과 사회 환원에도 앞장서 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주)태광

부산적십자사 고액기부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가입



태광은 1월 29일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에 부산 27호로 가입하고 명예의 전당 등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은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1억원 이상 기부하거나, 5년 이내에 기부할 것을 약정하는 고액기부자 모임이다. 태광 윤성덕 회장은 "지역민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기부는 기업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나눔과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고 다음 세대 육성에 기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광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윤성덕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매천장학회는 현재까지 약 25억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선보패밀리

이웃돕기 성금 1억원 쾌척



선보패밀리는 2월 2일 김해시청에서 부산사랑의열매와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에 성금 1억원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전달된 성금 1억원은 김해 지역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돕고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각각 5,000만원씩 사용될 예정이다. 선보패밀리는 1986년 남영공업을 시작으로 선보공업(주), 선보유니텍(주), 선보하이텍(주), 선보피스(주) 등 6개의 법인과 전국 7개 공장을 운영하는 조선 기자재 전문업체이다. 선보패밀리는 지난 2016년 선재장학재단을 설립해 김해 한림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선보패밀리 최금식 회장은 "장학금이 희망이 되어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응원하고, 설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정을 함께 나누고자는 하는 뜻에서 성금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세정그룹

어려운 이웃에 1,000만원 생필품 기부



세정그룹은 2월 5일 세정 본사에서 금정구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필품 1,000만원을 기부하였다고 밝혔다. 쌀, 라면, 양말 등의 기부된 생필품은 한파로 어려운 겨울을 보내는 홀몸 어르신과 소년소녀가장 등 금정구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 1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세정은 1999년 첫 기부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필품을 기부해오고 있으며, 매년 100가구를 대상으로 기부를 이어온 결과 26년간 2,600가구에 생필품을 전달하며 지역 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세정 박순호 회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온기를 전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이웃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적십자 성금 전달

부산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2월 5일 대한적십자사 부산 지사에 '2024 변하지 않는 희망, 적십자 희망 나눔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신한춘 이사장은 "이번 성금은 2024년 협회 총회 때 축하 인사를 전하는 각계 각층의 많은 분들에게 화환·화분을 대신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부탁드려 마련한 기금으로 전달하게 되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되어 마음이 푸근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부산 지역 화물 운송 사업자의 상호 협력 증진과 권익 옹호를 도모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부산시서비스운송사업조합 초록우산에 나눔버스 수익금 후원



부산시서비스운송사업조합은 2월 8일 초록우산에 '초록우산 나눔버스 운송 수익금' 2,024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초록우산 나눔버스를 운행한 동남여객, 대진여객, 국제여객에서 운송 수익금 10% 및 자율 기부금을 더해 각 500만원씩 후원하였으며, 이 외에도 동원여객, 시민여객, 일신여객 등 버스 회사와 부산시서비스운송사업조합의 임직원이 동참해 2,024만원을 모금하였다. '초록우산 나눔버스'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운송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버스다. 기부된 후원금은 부산지역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부산시서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의 업을 살려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 보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골든블루 상황버섯 발효주 '천년약속' 스페셜 패키지 출시



골든블루는 2월 5일 상황버섯 발효주 '천년약속'의 스페셜 패키지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청룡의 해를 맞이해 선보이게 된 '천년약속' 스페셜 패키지는 '천년약속' 3병과 전용 잔 2잔으로 구성됐다. 디자인은 '천년약속' 제품을 연상케 하는 황금색 컬러가 적용돼 젊은 세대와의 취향과도 잘 들어맞는다. '천년약속'은 지난 1998년 상황버섯에서 항암물질을 찾던 중 버섯 균사체 배양액에서 알코올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여러 차례의 실험을 거쳐 개발된 제품으로 2004년 정식으로 출시하였다. 효모를 만드는 일반적인 약주와 달리 상황버섯의 균사체를 발효원으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최근 전통주 시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천년약속'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동일 부산·경남 지자체들에 1억원 기탁



사회복지법인 동일은 2월 6일 민족명절인 설을 앞두고 양산시, 부산진구, 사하구, 기장군, 경남 산청군 등에 총 1억 여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성금은 장애인 복지사업과 노인 무료급식소, 저소득층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동일과 동일 스위트는 지난 34년 동안 부산·경남 지역의 저소득 가정과 홀몸 어르신 등을 위해 기부를 하고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활동과 장학사업을 이어왔으며, 2015년 사회복지법인 동일을 설립해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활발히 해오고 있다. 김종각 이사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업 이익을 나눔으로써 사회적 소명을 다하고 싶다"고 전했다.

(주)부산롯데호텔 고객과 함께한 기부 캠페인 성금 600만원 전달



부산롯데호텔은 2월 6일 부산롯데호텔 33층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캠페인으로 조성된 성금 6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롯데호텔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21일 까지 객실 판매를 통해 발생한 매출의 일부와 그와 동일한 금액을 호텔 측에서 일대일로 매칭하여 기금을 조성하였다. 기부된 성금은 부산지역 소외계층의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부산롯데호텔 관계자는 "2024년에도 부산롯데호텔은 ESG 경영 실천 및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롯데호텔은 ESG 경영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소아청소년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지원 나서

BNK부산은행은 2월 13일 부산의료원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체계'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체계' 지원사업은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 내 소아전용 진료구역 확충 및 이송 미니버스 지원, 시설개선 등으로 소아청소년들이 24시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전달식에서 BNK부산은행은 소아청소년을 위한 쾌적한 진료환경 마련과 빠른 응급의료 지원 서비스를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3억원을 지원하였다. BNK부산은행 방성빈 은행장은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의료 사각지대가 없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의료 지원사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상공회의소 2024년 3월 실무교육 안내

부산상공회의소에서는 지역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실무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줄
세무/회계, 인사/노무, 경영/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01 급여담당자를 위한 시리즈급여담당자를 위한 시리즈 급여/휴가계산, 4대보험(연금/건강/산재/고용)

일 시 3. 13.(수) 09:30 ~ 17:30 (7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박인아 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주제	내용
임금 계산 및 지급방법 최저임금/통상임금/평균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개정법령 및 주요변경제도 정리 • 임금의 기본개념 이해, 지급방법의 4대원칙 •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개념 및 적용실무사례 • 금품청산 및 소멸시효
연장·야간·휴일근로계산 (대체)공휴일 관리 연차휴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야간, 휴일근로계산 및 수당지급방법 • (대체)공휴일 관리 및 휴일대체/보상휴가제 • 특수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및 수당 지급기준
보험적용 및 자격관리(취득/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및 근로자 적용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 •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처리 • 고용보험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 작성
보험료 계산, 보수총액신고, 기타 실무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 부과기준, 보수월액 변경방법 • 건강보험 퇴직정산 및 연말정산 •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 근로자 휴직시 보험처리,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험 관리

02 2024년 개정세법 해설과 전사원이 알아야 할 접대비와 소비성 경비에 관한 지출 증빙서류 세무관리

일 시 3. 20.(수) 09:30 ~ 17:30 (7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오종원 회계사 (조세전문가)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주제	내용
2024년 주요 개정세법 해설과 소비성경비지출시의 적격증빙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개정된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주요 내용 해설 • 적격증빙의 종류 •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주요 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2024년 최초 적용 업무추진비 항목의 결산공시시 유의사항 • 적격증빙 구비에 대한 최신 행정해석 분석
지출증빙 특례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유형 분석
접대비 지출시의 적격증빙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개정 접대비 지출시 세무관리 • 접대비와 소비성경비의 세무관리 차이점 분석 • 상품권 등 지출시의 세무관리 • 국제청 세무조사시 주요 추정사례 분석
기타소득 등 인적용역 지급시의 적격증빙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개정된 인적용역 대가지급시의 증빙관리방법
조세전문가의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생 개별사안에 대한 조세전문가의 개별상담

03 하루 만에 총무업무 마스터 하기

일 시 3. 29.(금) 09:30 ~ 17:30 (7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중회의실

강 사 이종연 교수 (現 경영실무연구소 소장 & 한국생산성본부 전문교수)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날짜	내용	날짜	내용
총무개념 및 패러다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 개념 및 업무 FLOW • 지식사회형 총무 패러다임 변화 	총무 자산관리 핵심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적 자산 구분 및 총무 관리 영역 • 총무 고정자산관리(PLM) 핵심
사무행정 및 회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환경 및 기록물 관리 기본구조 • 회의준비 및 회의 진행 실무 일반 	총무계약 및 매출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식계약서 작성 및 확장 스킬 • 매출채권 효율적 회수 방법론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안내

부산상공회의소는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부산소재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코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오니 부산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내용

- ▶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배정인원 마감 시 조기종료)
- ▶ **지원내용:** 2024.1.1.이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2개월 간 월 60만원씩 지원(최대 720만원) ※ 2년 근속 시 장기고용 인센티브 480만원 추가지급
-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00%
- ▶ **기업 소재지:** 부산시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사하구(본사기준, 해당지역 소재 기업만 진행 가능)

참여대상

-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예외인정,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 연 매출액: '참여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
 -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 **청년**
 - 2024. 1. 1.~2024. 12. 31.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전환)한 "만 15~34세" 청년 (단, 병역기간 인정)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애로청년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대학(원) 재학중인 청년은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www.work.go.kr/youthjob ※ 운영기관 「부산상공회의소」 선택

진행절차



신청문의

부산상공회의소 대외협력사업본부 일자리지원팀
T. 051)990-7083, 8~9 F. 051)990-7149



2024년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내일채움공제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내일채움공제란?

부산지역 조선·기자재업종 기업의 정규직 채용 촉진을 위해 취업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신청기간

사업공고일 ~ 2024. 12.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 까지)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필수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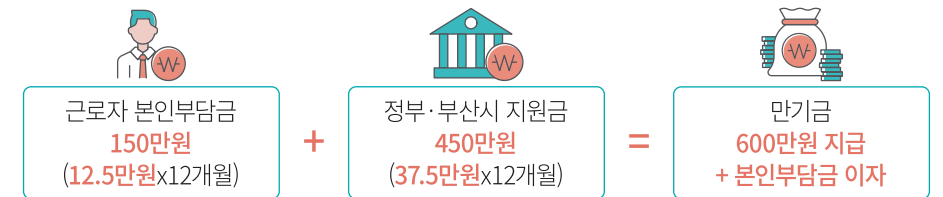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연령 무관
- **지원요건:** 2024. 1. 1. 이후 부산광역시 소재 「조선·기자재업종*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조선·기자재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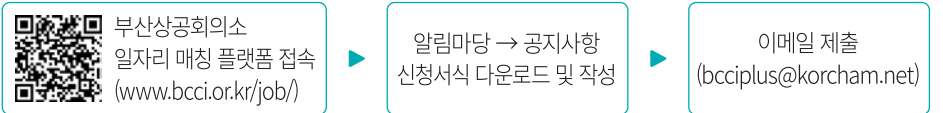
- ①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0차(C311-선박 및 보트건조업) 해당 기업
- ② 상기 업종 원청 매출액 비중 50% 이상인 조선기자재 기업
- ③ 부산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회원인 기업

※ 2024. 1. 1. 이후 채용되어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으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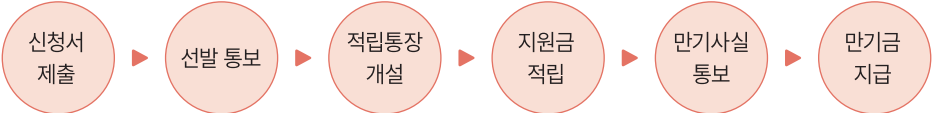
- **지원금액:** 근로자가 1년간 근속 시, 600만원 자산형성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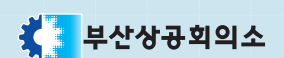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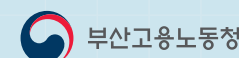


진행절차



문의처

부산상공회의소 대외협력사업본부 일자리지원팀
T. 051)990-7086, 7199 F. 051)990-7149, 7185



위험은 줄이고 혜택이 더해진-

상공회의소 PL(제조물책임) 단체보험

PL(제조물책임)보험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가입대상

- 완성품·부품 제조·공급·판매업체
- 수출·수입업체, 명의를 표시 판매업체, OEM업체
- 승강기·정수기, 각종 시설물 설치·유지보수업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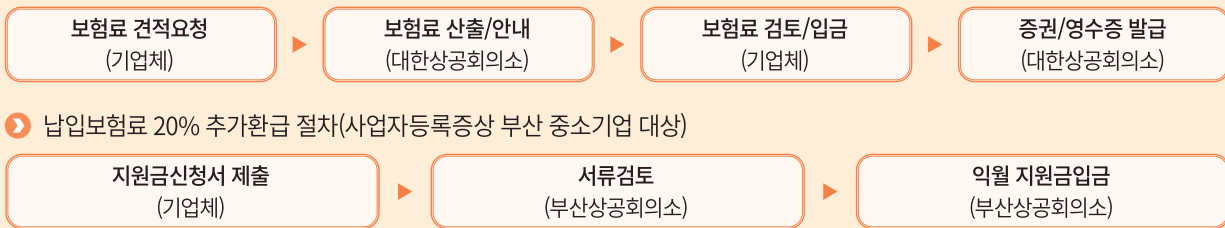
가입품목

-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
 - 자동차부품/가전/산업기계/의료기기/건축자재
 - 생활용품/화장품/의약품/섬유/잡화
 - 전기/화학제품/반도체 부품
 - 식품/음료 등

부산기업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 최대할인 40%**
 - 단체가입 20% 할인【인증마크 5% 추가할인(국내한정)】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 중소기업 대상 **납입보험료 20% 추가환급** (최대 100만원 한도, 예산소진 시까지)
- 기업에게 유리한 가입·사고처리**
 - 개별가입과 동일한 보험서비스
 - 개별가입보다 훨씬 싸게, 사고처리는 훨씬 유리하게
- 대한상외와 현대해상(주간사), KB, MG, NH가 함께하는 믿을 수 있는 보험**

가입절차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보험가입)**
 - 전화: 02-6050-3875~8
 - 팩스: 070-7614-3422
 - 메일: plcenter@korcham.net
 - 홈페이지: http://PL.korcham.net
-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보조금 환급)**
 - 전화: 051-990-7066
 - 메일: kmc0313@korcham.net

부산상공회의소 사무실 임대 안내

층수	면적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월관리비(원)	비고
	임대	전용				
5층	48평(158.4㎡)	29평(95.7㎡)	62,400,000	624,000	1,296,000	임대료, 관리비 부가세 별도
10층	47평(155.4㎡)	28.4평(93.8㎡)	61,100,000	611,000	1,269,000	

※ 문의 : 경영지원본부 남정호 과장대리(051-990-7034)

부산상공회의소 회의실 임대 안내

1F 대강당



좌석 수 : 360석(극장식)
면적 : 144평(476㎡)
현판규격 : 710cm×70cm
사 용 료 :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40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110,000원
오후 14:00~18:00	50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50,000원
1일	800,000원	냉·난방	140,000원

2F 상의홀



좌석 수 : 200석
면적 : 160평(528㎡)
현판규격 : 710cm×90cm
사 용 료 :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40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110,000원
오후 14:00~18:00	50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50,000원
1일	700,000원	냉·난방	140,000원

2F 국제회의장



좌석 수 : 100석
면적 : 99평(327㎡)
현판규격 : 480cm×80cm
사 용 료 :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28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80,000원
오후 14:00~18:00	35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20,000원
1일	500,000원	냉·난방	100,000원

2F 중회의실



좌석 수 : 70석
면적 : 57평(190㎡)
현판규격 : 480cm×80cm
사 용 료 :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22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70,000원
오후 14:00~18:00	28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00,000원
1일	400,000원	냉·난방	80,000원

회의실 사용료 할인안내

50%
할인

회원업체(당연)

20%
할인

회원업체(임의), 입주사, 3일(전일) 연속 사용업체 / 업체 시간외 냉난방비는 100% 할증

부산 원스톱 기업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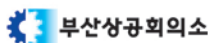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청 1층에 위치한 원스톱기업지원센터는 지역기업의 애로와 규제개선사항을 신속히 파악·해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설립 목적

- 원스톱기업지원센터 구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 구현
- 신속한 기업 지원서비스로 부산기업 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고 기업 역량 강화와 부산경제 활성화 도모

▶ 협력 기관



▶ 주요 추진 사업

1 기업지원 소통플랫폼 운영

- 기업애로 접수·상담 및 정보 제공
- 기업애로 현안·동향 조사

2 기업애로 현장 지원

- 기업애로 현장 방문반 활동
- 기업애로 해소 협의체 개최
- 기업애로 전문컨설팅 지원

3 기업애로·제도개선 건의·진정활동

- 대정부 및 유관기관 건의·진정 활동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1층

Tel. 051-888-6491~3 | Fax. 051-888-6499 | E-mail. onestop@bepa.kr

